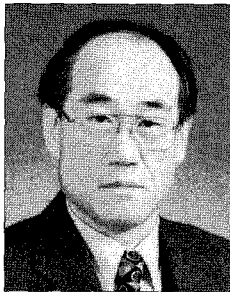


단발령과 전구 그리고 바리칸

글·서동호 부사장 (주)인터엠



금강산의 서쪽 천마산(天摩山)에 있는 재(嶺)가 단발령(斷髮嶺)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높

이 1,241m인데, 전설에 의하면 신라 왕자 혹은 고려 태조가 이 재에 올라와서 동쪽의 금강산을 바라보고 그만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고 하여 이 재의 이름이 그렇게 생겼다고 한다.

원래 머리털을 깎는 것을 삭발(削髮)이라 하여, 출가(出家)하여 중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삭발위승(削髮爲僧)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삭발례(削髮禮)라 하면 카톨릭에서 수도자 또는 성직 희망자의 머리털을 깎는 예식을 말하며 불교에서는 불문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물들인 가사(架娑)를 입는 의식을 삭발염의(削髮染衣)라 하고 있다.

원래 단발(斷髮)은 머리털을 자르거나 짧게 깎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말해서, 단발은 머리털을 짧게 깎아서 동여매지 않는 것이다. 본래 한국에서는 단발이라는 풍습이 없었으나, 불교의 승려들에 한하여 잘 드는 칼로 머리털을 박박 밀어 없애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조 말엽에 와서 유럽 및 외국인의 풍습에 따라 단발이 행해졌으나, 널리 일반에게 유행되기는 1910년의 한일합방이후의 일로서, 종래의 상투머리나 남녀 미성년자들의 길게 땅아 늘인 머리털을 일본인은 강제명령(斷髮令)으로 자르게 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단발이라 하면 보통 여학생과 어린아이들의 머리모양을 가리키며, 아니면 형무소에서 죄수들에게 시행되는 것등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옛부터 단발을 야만인의 풍습이라고 멸시하여 왔었는데, 중화민국이 수립된 뒤 비로소 단발이 시행되었으며, 1920년 경부터는 여자까지도 머리를 깎게 되었고, 현재에는 근대적 서양화(西洋化)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건양(建陽)원년 즉 1896년 1월 1일 국민들에게 머리를 깎게 한 명령이 그 유명한 단발령(斷髮令)이다. 이날 왕 고종(高宗)은 술선하여 단발하고 양복을 입었으며 전국민에게 단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것은 너무 급격한 명령인지라 고유한 풍습을 갑자기 버릴 수 없어 한 때 국민의 거센 반발이 심했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단발령이 내린 1896년, 이 사건은 두가지 점에서 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발령과 관련이 있는 전기이발기는 현재 전기용품 범주에 속하며, 1896년은 우리나라에서 전구의 역사의 시초이자 곧 조명사의 원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구(電球)는 진공 또는 소량의 질소라든가 아르곤과 같은 가스를 넣은 유리구안에서 가늘게 만든 섬조(纖維條) 또는 필라멘트(filament)같은 저항선(抵抗線)에 전류를 흘려 보내어 발열시키고 2,000°C 이상의 고온으로 해서 발광(發光)시키는 것이다.

초기의 전구는 1879년에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지만, 1887년에 영국인 스완(J. W. Swan)이 에디슨과 동일한 전구를 발명하였다. 이 2개의 발명은 서로 관계없이 전혀 별개로 추진된 연구에 의거한 것이다. 에디슨은 당시 진공속에서 높은 저항선에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광원(光源)으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

었으나, 그 높은 저항선 즉 필라멘트 재료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탄소·종이·무명실·아마사(亞麻絲) 등 여러가지 재료를 써서 시도했으나, 대부분은 10분 정도의 단시간에 끊어져 버리고 말아, 결국 40시간 이상 점등(點燈)할 수 있게 된 것은 1879년에 이르러서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1880년에는 대(竹)가 필라멘트 재료에 쓰일 수 있음을 발견하고 동양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각지의 대를 채집했고, 일본 교토 부근의 대가 가장 좋다고 해서, 그후 수년간은 대를 탄화(炭化)한 필라멘트가 쓰여졌다 한다. 그러나 탄소필라멘트에서는 1,800°C 정도의 온도로 되면 탄소가 증발하게 되고, 전구 내면이 검게 되는 약점이 있었다. 그후 1910년에 미국의 쿨리지(W. D. Coolidge)가 텅스텐을 가는 선(線)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이것이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텅스텐전구의 발단이 되었다. 필라멘트에 이 텅스텐을 사용함으로써 탄소보다 온도를 높게 할 수 있었으며, 빛은 자연광(自然光)에 가까워졌고, 또 수명이 매우 길어졌다.

삭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서 전기이발기보다는 바리칸(bariquant)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는 프랑스제조회사 이름인 Bariquand et Mar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주로 짧은 머리를 자르기 위한 이발용 기구를 말하는데, 빗모양으로 된 2개의 칼을 겹쳐 그중 하나를 왕복시킴으로써 머리털을 자른다.